

석면탈크, 제약기업 공급 우려 확산

약사회, 오염 우려 의약품 공개 요구 ... 식약청 유관단체 협의회 개최

석면에 오염된 원료가 100여개 제약기업에도 공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회가 석면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의약품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4월7일 <석면함유 탈크원료 사용 의약품에 대한 약사회 의견>을 통해 “석면 탈크로 제조한 의약품의 목록을 긴급히 확보해 위해성 여부에 따라 즉시 조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요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 환자들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으나 일선 약사들이 아무런 전문적인 조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 형태와 투여방법 등에 따라 안전성에 차이가 있는 만큼 복약지도와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당 약품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4월7일 오후 석면 탈크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유관단체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와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한약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업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녹색소비자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 다수의 관련 기관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식약청은 4월8일 의약품 등에 대한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석면 탈크가 사용된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4/07>